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관현악단에 선물악기들을 보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관현악단에 선물악기들을 보내주시었다. 삼지연관현악단은 은정어린 선물악기들을 보내주시었다. 탁월한 명도로 주체적음악예술발전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관현악단의 창설자, 총지휘자가 되어서 우리 시의 새로운 관현악단을 품소 부어주시고 뜻깊은 악단의 공연준비사업을 곁을 곁을 손잡아 이끌어 주셨다.

당의 믿음과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할 삼지연관현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높은 예술적기량과 성실한 연주자세로 제 23차 겨울철을 맞이하여 성취를 향하여 짧은 기간에 훌륭한 준비하여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주체예술의 자랑스런 발전 면모를 뚜렷이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나라의 중대사를 품소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삼지연관현악단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시고 최상급의 악기 악기를 선물로 보내주시는 데해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관현악단에 보내주신 선물악기전달식이

6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광호동지와 삼지연관현악단의 일군들, 창작가, 예술인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선물악기전달사를 박광호동지가 하였다. 전달식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악기들은 삼지연관현악단을 우리 당의 음악정치로 뭉어 앞장에서 발돋움하시는 본보기예술단체로, 세계인류급의 관현악단으로 내세워 주시려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깃들어있다고 하였다.

연설자는 악단의 전체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삼지연의 정당한 물과 공기처럼 순결한 향기의 피를 지니고 우리 당의 음악정치를 가장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도른자들은 은정어린 선물악기들을 받아안은 크나큰 감격과 기쁨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명도를 높이고 참신한 예술활동으로 보라해나갈 불같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선물악기들을 눈동자처럼 애로관하며 지킬줄 모르는 혁명적열정을 안고 신력정진의 편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창작상조일력과 예술적기량을 무한히 높여나갈것이라고 하였다.

도른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격찬한 사랑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예술창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인에서는 절의문이 재배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참가자들의 열렬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었다. 전달식에서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현승동지, 악장 최성일동지, 연주자 조은주동지가 절의 도른을 하였다.

도른자들은 은정어린 선물악기들을 받아안은 크나큰 감격과 기쁨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명도를 높이고 참신한 예술활동으로 보라해나갈 불같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선물악기들을 눈동자처럼 애로관하며 지킬줄 모르는 혁명적열정을 안고 신력정진의 편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창작상조일력과 예술적기량을 무한히 높여나갈것이라고 하였다.

도른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격찬한 사랑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예술창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인에서는 절의문이 재배되었다.

언제나 인민을 생각하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어느날 여름 깊은 밤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일군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즈음 진행되고계시던 함경남도에 대한 현지지도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를 토의하신 후 어서 가 쉬라고 하시며 그의 등을 다정히 때미셨다. 하지만 일군은 섣뜻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잠시 일군을 바라보시다가 왜 그러는가고,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고 물으셨다.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를 불우시자 일군은 전사들을 생각하는 몇분의 일이라도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주의를 돌려주시길것을 절절히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일군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었다.

일군은 자리에 앉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잠시라도 휴식하시실 것인지를 하겠는가 하는 생각만 하였다.

그는 그의 머리속에 푹 푹 안겨 들어 들은것을 한 일군의 품이아가기가 떠올렸다.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중히 말씀하셨다. 「장군님, 저의 이야기를 하나 들으시겠습니까? 10분이면 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볍게 웃으시면서 10분이면 좋다고, 그러나 그이상 넘기면 약속을 어기 겠을 특별히 말씀을 일라고 하시었다.

일군이 무척히 차오르는 기쁨에 가슴을 울렁이면서 앞으로 10분을 넘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하나의 품이아기를 말씀드리기 시작하였다.

... 어느날 한 일군이 사는 마을에 경

사가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을에 찾아오셨었다. 일군은 자리를 차고있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밀려가는 속을 비껴고 끼어들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쏘아보며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사람들속으로 밀려난 그는 환호성이 터지고있는쪽을 정신없이 바라보다 그분들 자기 옷을 훑어보았다. 옷은 온통 먼지투성이였고 운동화에는 흙이 잔뜩 묻어있었다.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어 급기가 되돌아서서 집으로 달려가서 쉬었다. 그런데 그만 눈물이 앞을 가리워 갈 보지 않아 큰눈에 제워 넣 어지는 바람에 품에서 꺼내었다. 비록 품이었지만 그 일군의 초격은 이불에 없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 젖어있는 눈금을 씻고 나서 위대한 장군님을 임의의 시각에 만나뵈을 준비가 되어있는가를 물어보셨다. 그러하여 아침일찍 일어나는 죽서도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구두 등을 준비하고 그것을 정히 보관할 트렁크도 마련하였다. 그리고는 간절한 소원을 안고 그것을 스다듬기를 그쳤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가 만든 기업소에도 꼭 찾아오실것이라는 것을 믿어주시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업소를 찾으신 것이었다.

일군은 장히 간수해놓았던 새 양복과 와이셔츠를 꺼내어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는 최상의 영품을 지니었다.

... 「결국 그의 꿈은 현실로 되었습니까.」

일군은 이렇게 이야기를 맺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마냥 일련 단상 명도자를 따르며 꿈속에서도 그는 온 나라 일군들과 인민들의 마음이 헤아려지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인간이 아무 말없이 이 생각에 잠겨계셨다.

이후고 일군을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 고맙다고, 동무의 말을 들으니 힘이 배배해지는것 같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어 자리에 서 일어하셨다. 그러시고는 일군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며 그런 좋은 인민들이 나를 받들고있는데 나도 그에 보답하여야 하지 않겠는가고,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해주어 고맙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져서 일군은 그만 머리를 숙이였다.

그러는 일군의 등을 떠미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서 가 눈을 좀 붙이라고 하시었다. 그러나 일군은 이만이라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처럼 하루밤만이라도 편히 쉬시옵기를 간절히 아뢰었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니라고, 동무의 말을 들으니 더더욱 잘 해야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세상에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들의 속천 속에 일하는 자식처럼 행복할 사람은 없다고, 자신들을 위해서라면 백발백중을 새우도 톨리지 않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의 인품에는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자신의 온몸을 장그리 불태울 결심이 여러어려웠다. 일군의 가슴속에서는 격정의 파도가 세차게 밀려왔다.

창작에서는 어둠이 서서히 가시지고있었다. 날이 밝을 때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 잊지 못할 그날의 여름밤은 이렇게 흘러갔다.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생애에 그말에 흘러간 밤들이 정녕 그 열매인가.

한평생의 어느 하루도 후식을 모르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 분투하신 위대한 장군님. 이 말에 흘러간 날과 밤들에 붙여 이 슬퍼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 가 시무처와 인민들의 가슴 끝없이 젖어둔다.

위대한 아버지, 자애로운 스승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인민을 환롭게 인아주시고 절의 단결과 의지, 비범한 명도력으로 사회주의 장군전신을 형성하게 하고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여러 나라와 지역의 출판보도물들이 높이 칭송하고있다.

나이제리이에 본부를 본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현대적 아프리카지역 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오늘 국제사회는 미국과 추종세력의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자주권을 수호하면서 장군전신을 다 그쳐나가는 조선을 정한의 눈길로 바라보며 이 나라의 명도자께로 관심을 모으고있다.

하다면 김정은 최고령도자는 어떤분이신가. 한미디로 그는 훌륭한 품격과 자질을 갖춘 현시대의 가장 리상적인 국가지도자이다.

이 탄의 일 나 품 신 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이시야말로 숭고한 인격과 인민관을 지니신 애민형의 정치가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도 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시며 진정한 애민정치를 보여가신다.

조선인민은 그의 정치에 대해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라고 표현한다.

인민의 편익을 최우선, 절대하시

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건물을 하나 지어도,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그들이 권리해 하는가를 물으신다.

그이께서는 활동의 대부분을 집무실에서가 아니라 나라의 방방곡곡 인민들을 찾느것으로 보내시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에게 인민을 위해 열사부담것을 강조하신다.

조선인민은 그이를 국가지도자에 앞서 아버지요, 스승으로 따르며 흠모하고있다.

네팔인미데라즈크 《네팔 투데이》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 최고령도자는 세련된 명도와 비상한 견제력, 완강한 투지를 지니신 실권자이시이다.

조선은 적대세력들의 장기간에 걸치는 제재와 봉쇄로 하여 다른 나라들같은 국가존망사체를 기대할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의 명도덕에 앞장서고 인민생활이 날로 향상되고 있다.

도처에 주체화, 현대화가 실현된 본보기공장, 기업소들이 수없이 건설되고 인민생활이 날로 향상되고 있다.

조선은 이미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등장하였다.

꽃스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합을 위한 국제친선발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게재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시기

위해 삼복형과 추운 날, 한밤중과 새벽에도 지칠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이신다.

인민에 대한 그의 사랑과 열정은 훌륭한 열매를 맺고있다.

조선인민은 뜨겁고도 위대한 사랑과 정으로 운동과 미해도 보살펴주시는 최고령도자의 사랑속에 살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하기에 그들은 명도자를 총정대해 받들어주시고있다.

조선인민은 김정은각하의 명도덕에 모든 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며 그들을 앞장서서 같은 걸음을 내딛고있다.

방글라데시신문 《데일리 포크》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신념과 배짱, 자주적대강한 강지형의 지도자이시이다. 그이께서는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시며 대국들의 강권과 전횡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

조선이 오늘 국제무대에서 자기 할 소리를 당당하게 하는 우대있는 나라, 자주강국으로 존엄되고있는것은 결국 명도자의 덕이라고 할수 있다.

세계인민들은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마치한 인정을 지니신 인민적인 정치가, 《조선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하시는 명도자》로 찬양하고있다. 김정은각하의 명도덕에 더욱 부강한 모습으로 세계무대에 진출할 조선의 앞날이 기대된다.

절세 위인의 거룩한 행로에서

비를 맞으시며

해방후 어느날 7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인민의 공전, 모란봉유원지 개천식이 진행되게 되었다.

그날은 이른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개천식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있는 일군은 날씨때문에 마음을 바쳐 이다가 시간이 되어 공원으로 나갈 차비를 서둘렀다.

그때는 낮 12시가 좀 지나서였다.

일군이 방문을 나서려는데 위대한 수명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개천식에 자신에서도 가겠다고 하시는데였다. 일군은 망설이였다.

상문을 보니 비물이 그냥 졸졸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위대한 수명님께 일군은 비가 오기때문에 저희들끼리 가겠다고 말씀 올리였다.

보시던 문견들을 털어놓으시고 자리에서 일 어시신 위대한 수명님께서는 아니라고, 자신께서도 가겠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것을 보고싶다고 하시며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하나의 품이아기를 말씀드리기 시작하였다.

... 어느날 한 일군이 사는 마을에 경

다, 우리 인민들의 옷차림이 아직 변변하지 못하데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해입겠는가고 하시며 사양하시었다.

그때도 일군들이 거북 강정드러자 수명님께서는 비닐봉투를 조립하여 비닐봉투를 꺼내어 주시라고 권하셨다. 우리 인민들은 그 비닐봉투를 가지고 만든 천으로 멋진 새옷을 만들어입게 되였다. 그때가

친히 마련하신 점심식사

언제인가 위대한 수명님께서 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며 형의회관 지도하시었다.

형의회는 점심때가 떠나지 아니하여 끝났다. 이때 공장일군들은 위대한 수명님을 공장장으로 모시려고 하였다. 거기에 점심식사를 준비해놓았었다.

자기 지방의 특산물로 점심식사를 준비한 이 공장 로동공급과 일군들의 지성은 퍼없이 극진하였다.

일군들이 정양소에 점심식사를 준비해놓았다고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명님께서는 그럴 모두 같이 가져가고 하시었다.

일군들은 기쁨을 금치 못하며 그들이 위대한 수명님께서 일장서 걸으시며 일군들을 배려하시신 것은

나도 새옷을 한벌 해입었다고 하시며 끝내 허락하지 않으셨다.

순간 일군은 위대한 수명님께서 입고계시는 옷을 의아한 눈길로 다시 보았다. 이때 부편이 일군에게 위대한 수명님께서 입고계시는 양복은 본래의 낡은 양복을 뒤집어 손질한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일군들모두의 눈가에 뜨거웠음이 교여올랐다.

정양소가 아니라 그의 숙소였다. 일군들은 너무도 뜻밖의 일에 여러 등질해였다.

그곳에는 간소한 점심상이 차려져있었던것이다.

소박한 식탁에는 조밥 몇그릇과 오이랭국이 올랐었다.

뜨거운것이 지핀머리를 격정에 휩싸여있는 일군들을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명님께서는 오늘날은 우리가 준비해온 식사를 같이하고 하시며 오늘처럼 더운 날에는 시원한 오이랭국이 그저그만이고 거기에 조밥이 제격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날말 위대한 수명님께서는 낮에 있었던 일을 두고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대접놀음을 반대합니다.

국제 김일성상을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에게 수여하기로 결정

국제김일성상리사회가 6일 평화위엄수령에 특출한 공헌을 국제김일성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제 김일성상리사회가 6일 평화위엄수령에 특출한 공헌을 국제김일성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라온 히메네스 로페스에게 [조선공동통신]

김영남 동지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존경하는 김영남동지

나는 당신이 내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축원을 보내는데 대해 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친절적인 중조친선은 두 나라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조선 최고인민회의와 함께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이 이룩한 중요한 공동의 성과에 따라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협조를 추진하며 중국 두 나라관계의 장기적이고 건전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되기를 축원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를 전 서

2018년 3월 28일 배이징

위대한 어머니당의 숭고한 인민 사랑에 따라들려서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맑아져 변모되는 우리 조국.

푸른 숲 울림이는 아름다운 대동강을 옆에 끼고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가 가로되어 좋고 눈부시게 새아 빛나는 려명거리에 둘러보아도 좋다.

그러면 오늘의 이 행복을 그 누가 주었나 로동당이 주었대라고 마음속해서 소리를 들을수 있다.

노래가 안고있는 심오한 뜻을 음미해보노라면 위대한 수명님께서 용용하시던 소박한 재택이 전하는 잊지 못할 이야기가 뜨거운 격정속에 되새겨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동지의 한평생 이민주권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영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운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평생이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이었다.

이날 위대한 수명님의 지택에 처음으로 들리게 된 한 일군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민주권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나루로 된 수수한 출입문의 문 손잡이로부터 방안에 들어있는 옷장이며 책상, 걸상 등 가구는 물론 전등까지 이르까지 다 그 어느 집에서도 흔치 않은 평범한것들이기 때문이었다.

사실 일군은 이곳으로 오면서 우리 수명님께서 리용하고계시는 지택이 이처럼 소박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었다.

그 초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 후 위대한 수명님을 모시게 된 기회에 일군은 수명님께서 지금 리용하시는 지택이 한 나라의 수명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 수수한것 같다고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수명님께서는 만년에 관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시나 크고 오만한 해야 할 하였는가고, 인민들이 사는 집에 비하면야 자신에게는 이런 집도 과당하다고 하시는데였다.

일군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달아올랐다.

우리 인민들에게 현대적인 심심 집들을 편이 어 안겨주시면서도 자신께서는 수수하고 소박한 지택을 그대로 리용하시니 우리 수명님과 같은 인민의 어머니가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있었는가.

일군은 위대한 수명님께 이제는 인민들도 훌륭한 집에서 사는데

가구나 미물같은것이 좋은것으로 갖추어놓으실수 있지 않는가고 다시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위대한 수명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인민들보다 더 좋은것을 쓰고사는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아직은 우리 인민들의 생활도 그럭저럭 좋지 못하고 나라에 돈도 많지 못하데 내가 어떻게 요한한 집에서 좋은것들을 쓰고살겠소. 그 제 우리 나라에서 만든 수수한 가구와 비품, 옷과 신발, 고무가치를 제 제일이고 그것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돈을 쓰셨으면 인민생활에 하나라도 보탬을 주는 일에 써야 합니다. ...

위대한 수명님의 교시를 받아인는 그의 머리속에는 언제나 한 일군이 흘러들면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다.

어느 해인가 일군들은 어머니수명님께 새 지택을 마련해드리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신 위대한 수명님께서는 일군들을 부르시어 지금 동무들이 잘못 생각하고있다고, 동무들의 생각은 자신과 인민을 분리하여보는 잘못된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평양에 소년궁전을 크게 짓자고 하는데 동무들이

소년궁전을 지을 때는 하고싶은데도 마음껏 크고 화려하게 짓고 싶다고 하시었다.

그대의 일을 들어보며 일군은 정말 이 세상에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수명님같은분은 없다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그러자 위대한 수명님께서는 그제서 내 좌우명이 이민주권이라는 아니라고 혼연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지켜보지 못한 이민주권의 숭고한 뜻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간직하시되기에 위대한 수명님의 마지막까지까지도 소박한 지택에서 생활하신 위대한 수명님.

하기에 나같이 행복이 커만 갈수록 우리 원만인민은 한평생 오로지 인민을 위해 원만고생을 다 겪으시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후천도 허용치 않으신 위대한 수명님을 먼저 생각하시는것이 바로 그이의 숭고한 영혼이기에 땅에 하루빨리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는것입니다.

우리 언제나 잊지 말자,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이 어머니수명님의 이민주권의 위대한 한평생과 맞바꾼것입니다.

우리 당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유훈관철을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형치의 드림도 없이, 환승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사상과 법칙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형치의 드림도 없이, 환승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사상과 법칙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평성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체제명업임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를 발표하시었다. 우리 당을 명실공히 수명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영광스러운 길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나서는 비론불변적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로작은 날이 갈수록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우리는 그것을 평성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을 위해서라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

겨센 바람을 일으키는 송풍기가 되자

두레전 12월 시의 당책임 일군으로 임명되여온 함경북도 당위원회는 첫 사업을 위해 장군님의 유훈관철정령을 토대로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과고높을 수 미흡한 실정이었다. 특히 시안의 일부 동들에서 수송도가 불비하여 인민들이 생활상고충을 겪고있었다. 그런데도 시안의 일군들은 혁명적인 태도를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시당책임일군은 여러 일군들과 현직담당자를 하면서 유훈관철을 위한 첫 사업으로 자신-은 장군수도공사를 진행할 결심을 굳혔다. 당위원회 책임일군들도 적극 지지해주었다.

시당책임일군은 여러 일군들과 현직담당자를 하면서 유훈관철을 위한 첫 사업으로 자신-은 장군수도공사를 진행할 결심을 굳혔다. 당위원회 책임일군들도 적극 지지해주었다.

시당책임일군은 여러 일군들과 현직담당자를 하면서 유훈관철을 위한 첫 사업으로 자신-은 장군수도공사를 진행할 결심을 굳혔다. 당위원회 책임일군들도 적극 지지해주었다.

시당책임일군은 여러 일군들과 현직담당자를 하면서 유훈관철을 위한 첫 사업으로 자신-은 장군수도공사를 진행할 결심을 굳혔다. 당위원회 책임일군들도 적극 지지해주었다.

시당책임일군은 여러 일군들과 현직담당자를 하면서 유훈관철을 위한 첫 사업으로 자신-은 장군수도공사를 진행할 결심을 굳혔다. 당위원회 책임일군들도 적극 지지해주었다.

로동자들에게 들어간 시당위원회 일군들은 공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과년 강판을 리용하여 공사를 추진시킬 방법을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좋은 방법을 찾아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긴 강판을 용접으로 일정한 크기의 규격으로 토막을 내는 작업도 힘들었지만 그것을 다시 손질하여 쓸모있게 만든다는 것은 용이한 문제가 아니었다.

시당위원회 일군들은 바로 정치사업을 겸하지 않았다. 20여 시간간을 심혈을 기울여 오가면서 용접작업이 되지는 때에는 직접 용접면을 잡고 하루종일 용접공이 되었고 어떤 때에는 강판을 실어내리는 운반공이 되기도 했다. 이에 고무된 시당위원회 일군들은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게 된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되었다.

강한 집행력을 발휘하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고 추진하는것은 만능공이 되는 안이다. 강판을 잘 때기나 내일이 그 생활력이 아니라 해야 한다. 시당위원회는 유훈관철을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데서 이 점을 중시했다.

지난해 1월 삼화남세전원동중공업에 0.5점보의 편중시온실을 새로 건설하고 협동농장 내에 있는 1000㎡의 남세온실을 개건보수할것을 결정했음을 말했다. 그 집행정령을 토대로 하기 위해 어느 한 농장에 나갔던 시당책임일군은 이 사업이 지지되고있는것을 알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고 추진하는것은 만능공이 되는 안이다. 강판을 잘 때기나 내일이 그 생활력이 아니라 해야 한다. 시당위원회는 유훈관철을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데서 이 점을 중시했다.

지난해 1월 삼화남세전원동중공업에 0.5점보의 편중시온실을 새로 건설하고 협동농장 내에 있는 1000㎡의 남세온실을 개건보수할것을 결정했음을 말했다. 그 집행정령을 토대로 하기 위해 어느 한 농장에 나갔던 시당책임일군은 이 사업이 지지되고있는것을 알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고 추진하는것은 만능공이 되는 안이다. 강판을 잘 때기나 내일이 그 생활력이 아니라 해야 한다. 시당위원회는 유훈관철을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데서 이 점을 중시했다.

지난해 1월 삼화남세전원동중공업에 0.5점보의 편중시온실을 새로 건설하고 협동농장 내에 있는 1000㎡의 남세온실을 개건보수할것을 결정했음을 말했다. 그 집행정령을 토대로 하기 위해 어느 한 농장에 나갔던 시당책임일군은 이 사업이 지지되고있는것을 알게 되었다.

당위원회에서 내준 자를 타고 사동구역 장전남세전원동중공업의 남세제배정령을 배우기 위해 그곳에 다녀왔다.

농사에 정양남세과학연구소의 연구사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연구한 앞선 남세제배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밀고나갔다.

농장의 농업과학기술보급실에 광물도 보내주었다. 특히 월마다 시안의 온실부분의 농업과학기술을 위한 천정기술진습회를 2차이상 조직하여 그들이 앞선 남세제배방법을 자기 단위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서 헌신성을 발휘하게 하였다. 농정에서는 온실안에 배치우리와 미꾸라지식장장을 건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남세제배에 리용하였다. 또한 온실안에 여과기의 우물도 과고 제철에 구애없이 남세농사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대주게 하였으며 온실공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남세제배면적을 늘이고 생산량을 높일수 있게 했다. 지난해에도 농정에서는 10여기의 온실남세를 생산하여 시안의 주민들과 평성중학원 원아들에게 공급하였다.

시에서는 지난해 바닷길공도 건설했다.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겠다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강한 집행력을 발휘해나갈 때 대중의 정신력은 활화산처럼 분출하게되리라이다.

시당위원회는 앞선 남세제배방법을 받아들여가기 위한 사업도 당적으로 틀어쥐고나갔다. 농장관리위원회와 해당 일군들이 시

당위원회에서 내준 자를 타고 사동구역 장전남세전원동중공업의 남세제배정령을 배우기 위해 그곳에 다녀왔다.

농사에 정양남세과학연구소의 연구사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연구한 앞선 남세제배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밀고나갔다.

농장의 농업과학기술보급실에 광물도 보내주었다. 특히 월마다 시안의 온실부분의 농업과학기술을 위한 천정기술진습회를 2차이상 조직하여 그들이 앞선 남세제배방법을 자기 단위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서 헌신성을 발휘하게 하였다. 농정에서는 온실안에 배치우리와 미꾸라지식장장을 건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남세제배에 리용하였다. 또한 온실안에 여과기의 우물도 과고 제철에 구애없이 남세농사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대주게 하였으며 온실공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남세제배면적을 늘이고 생산량을 높일수 있게 했다. 지난해에도 농정에서는 10여기의 온실남세를 생산하여 시안의 주민들과 평성중학원 원아들에게 공급하였다.

시에서는 지난해 바닷길공도 건설했다.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겠다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강한 집행력을 발휘해나갈 때 대중의 정신력은 활화산처럼 분출하게되리라이다.

시당위원회는 앞선 남세제배방법을 받아들여가기 위한 사업도 당적으로 틀어쥐고나갔다. 농장관리위원회와 해당 일군들이 시

당위원회에서 내준 자를 타고 사동구역 장전남세전원동중공업의 남세제배정령을 배우기 위해 그곳에 다녀왔다.

농사에 정양남세과학연구소의 연구사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연구한 앞선 남세제배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밀고나갔다.

농장의 농업과학기술보급실에 광물도 보내주었다. 특히 월마다 시안의 온실부분의 농업과학기술을 위한 천정기술진습회를 2차이상 조직하여 그들이 앞선 남세제배방법을 자기 단위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서 헌신성을 발휘하게 하였다. 농정에서는 온실안에 배치우리와 미꾸라지식장장을 건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남세제배에 리용하였다. 또한 온실안에 여과기의 우물도 과고 제철에 구애없이 남세농사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대주게 하였으며 온실공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남세제배면적을 늘이고 생산량을 높일수 있게 했다. 지난해에도 농정에서는 10여기의 온실남세를 생산하여 시안의 주민들과 평성중학원 원아들에게 공급하였다.

시에서는 지난해 바닷길공도 건설했다.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겠다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강한 집행력을 발휘해나갈 때 대중의 정신력은 활화산처럼 분출하게되리라이다.

시당위원회는 앞선 남세제배방법을 받아들여가기 위한 사업도 당적으로 틀어쥐고나갔다. 농장관리위원회와 해당 일군들이 시

당위원회에서 내준 자를 타고 사동구역 장전남세전원동중공업의 남세제배정령을 배우기 위해 그곳에 다녀왔다.

농사에 정양남세과학연구소의 연구사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연구한 앞선 남세제배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밀고나갔다.

농장의 농업과학기술보급실에 광물도 보내주었다. 특히 월마다 시안의 온실부분의 농업과학기술을 위한 천정기술진습회를 2차이상 조직하여 그들이 앞선 남세제배방법을 자기 단위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서 헌신성을 발휘하게 하였다. 농정에서는 온실안에 배치우리와 미꾸라지식장장을 건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남세제배에 리용하였다. 또한 온실안에 여과기의 우물도 과고 제철에 구애없이 남세농사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대주게 하였으며 온실공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남세제배면적을 늘이고 생산량을 높일수 있게 했다. 지난해에도 농정에서는 10여기의 온실남세를 생산하여 시안의 주민들과 평성중학원 원아들에게 공급하였다.

시에서는 지난해 바닷길공도 건설했다.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겠다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강한 집행력을 발휘해나갈 때 대중의 정신력은 활화산처럼 분출하게되리라이다.

시당위원회는 앞선 남세제배방법을 받아들여가기 위한 사업도 당적으로 틀어쥐고나갔다. 농장관리위원회와 해당 일군들이 시

남포수산사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최근 남포수산사업소 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종업원들을 혁명적수령관을 지닌 열혈의 인간들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우선 교양사업을 잘 꾸리는 데 신중성을 보였다. 이 사업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당원들은 당원들의 요구에 맞게 먼 듯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도 일환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당시 사업소의 현정은 매우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애로와 난관도 많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단지 당원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실 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혁명적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참된 인간들로 키우는 데있어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한 강경수지배인과 박성진 온천시 해양수산사업소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 제기되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혁명적교양사업과 열혈적수령관을 우리 당의 영도적지침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도 여러 가지 형식

최근 남포수산사업소 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종업원들을 혁명적수령관을 지닌 열혈의 인간들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우선 교양사업을 잘 꾸리는 데 신중성을 보였다. 이 사업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당원들은 당원들의 요구에 맞게 먼 듯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도 일환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당시 사업소의 현정은 매우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애로와 난관도 많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단지 당원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실 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혁명적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참된 인간들로 키우는 데있어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한 강경수지배인과 박성진 온천시 해양수산사업소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 제기되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혁명적교양사업과 열혈적수령관을 우리 당의 영도적지침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도 여러 가지 형식

최근 남포수산사업소 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종업원들을 혁명적수령관을 지닌 열혈의 인간들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우선 교양사업을 잘 꾸리는 데 신중성을 보였다. 이 사업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당원들은 당원들의 요구에 맞게 먼 듯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도 일환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당시 사업소의 현정은 매우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애로와 난관도 많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단지 당원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실 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혁명적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참된 인간들로 키우는 데있어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한 강경수지배인과 박성진 온천시 해양수산사업소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 제기되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혁명적교양사업과 열혈적수령관을 우리 당의 영도적지침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도 여러 가지 형식

최근 남포수산사업소 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종업원들을 혁명적수령관을 지닌 열혈의 인간들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우선 교양사업을 잘 꾸리는 데 신중성을 보였다. 이 사업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당원들은 당원들의 요구에 맞게 먼 듯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도 일환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당시 사업소의 현정은 매우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애로와 난관도 많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단지 당원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실 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혁명적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참된 인간들로 키우는 데있어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한 강경수지배인과 박성진 온천시 해양수산사업소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 제기되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혁명적교양사업과 열혈적수령관을 우리 당의 영도적지침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도 여러 가지 형식

최근 남포수산사업소 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종업원들을 혁명적수령관을 지닌 열혈의 인간들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우선 교양사업을 잘 꾸리는 데 신중성을 보였다. 이 사업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당원들은 당원들의 요구에 맞게 먼 듯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도 일환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당시 사업소의 현정은 매우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애로와 난관도 많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단지 당원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실 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혁명적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참된 인간들로 키우는 데있어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한 강경수지배인과 박성진 온천시 해양수산사업소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 제기되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혁명적교양사업과 열혈적수령관을 우리 당의 영도적지침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도 여러 가지 형식

최근 남포수산사업소 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종업원들을 혁명적수령관을 지닌 열혈의 인간들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우선 교양사업을 잘 꾸리는 데 신중성을 보였다. 이 사업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당원들은 당원들의 요구에 맞게 먼 듯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도 일환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당시 사업소의 현정은 매우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애로와 난관도 많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단지 당원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실 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혁명적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참된 인간들로 키우는 데있어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한 강경수지배인과 박성진 온천시 해양수산사업소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 제기되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혁명적교양사업과 열혈적수령관을 우리 당의 영도적지침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도 여러 가지 형식

최근 남포수산사업소 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종업원들을 혁명적수령관을 지닌 열혈의 인간들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우선 교양사업을 잘 꾸리는 데 신중성을 보였다. 이 사업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당원들은 당원들의 요구에 맞게 먼 듯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도 일환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당시 사업소의 현정은 매우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애로와 난관도 많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단지 당원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실 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혁명적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참된 인간들로 키우는 데있어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한 강경수지배인과 박성진 온천시 해양수산사업소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 제기되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혁명적교양사업과 열혈적수령관을 우리 당의 영도적지침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도 여러 가지 형식

최근 남포수산사업소 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종업원들을 혁명적수령관을 지닌 열혈의 인간들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우선 교양사업을 잘 꾸리는 데 신중성을 보였다. 이 사업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당원들은 당원들의 요구에 맞게 먼 듯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도 일환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당시 사업소의 현정은 매우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애로와 난관도 많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단지 당원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실 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혁명적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참된 인간들로 키우는 데있어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한 강경수지배인과 박성진 온천시 해양수산사업소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 제기되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혁명적교양사업과 열혈적수령관을 우리 당의 영도적지침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도 여러 가지 형식

참관의 실효를 어떻게 높였는가

보통강신발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두레전 1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새겨져 울리고있는 원수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이 전해졌을 때였다.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한자리에 모여있었다. 그들은 신발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방도를 공상에 있던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그리도 엄중하게 진행하는데 있어 도의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연혁사업을 통한 교양사업을 당과 수령의 위대성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의 중요하고 고된 일로 틀어쥐고 신속하게 잘 하셔야 합니다.》

지난 기간 공장에서 혁명적사상교양과 함께 열혈적수령관도 구체적인 본보기가 되게 잘 꾸려주고 함양사업을 정상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유훈관철을 거두었다고 할수는 없었다. 그것은 공장의 연혁에 대한 해설을 주로 세세대 초급일군들이 맡아왔고 적지 않게 관련되었다. 또 근로자라 하여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장을 찾으셨던 당시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있었다.

김정수초급당위원장은 40여년전에 공장에서 일하였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찾고 그들을 대내외 연혁사업의 실효를 높일것을 맡게하였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오래전엔 너도모르던 공장문을 나선 그들을 찾지 못할것을 걱정하고 하면서 머리를 긁적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초급당위원장은 물리치지 않았다. 당원들은 시안의 여러 구역들을 매주 방문하며 80여명에 이르는 그들을 한 명명명 찾아냈다.

초급당위원장이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하자 그들은 새 세대로에게서 충실성의 바통, 당정책적사상관철의 바통을 역세이어나가도록 이끌어주는것은 자기들의 본분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었다.

그러하여 지난해 당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해 조직한 연혁사업실천사업에서 그들이 해설을 맡아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그마한 건물에 몇대의 낮은 기계들을 들여놓은 불꽃없는 공장을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이 갖은 신발생산기지로 전면시켜준 당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감동있게 해설하였다. 그러면서 현재의 위인께서 공장을 떠나신 후 온 공장이 산악과 같이 펼쳐나 볼라 몇년사이 신발생산능력을 3배이상 높이고 당이 지시한 전률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함에 대하여 실감있게 이야기하였다.

체제명업의 해설은 일군들과 근로자, 기술자들의 심장을 격동시켰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명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신발생산에서 비약할 일떠세진세대 로동계급처럼 일떠세진세대 로동계급처럼 비껴있었다.

신발생산에서 다종화, 다양화, 다량화를 실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후방에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낮에 밤을 이어 긴장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기술은

들어왔다.

자재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를 이루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의 위대성을 가슴깊이 새기고 뜨거우 공상에, 항오에, 조국애를 발휘하여 단위의 비약발달을 이룩하도록 하는데서 열혈적수령관실천사업이 차지하는 의의는 매우 컸다.

당의 불멸의 업적을 잘 알고 있는 체제명업들을 내세워 연혁사업실천관의 실효를 높인 이곳 당조직의 사업에는 본받을 점이 있었다.

본사기자 김승표

《우리》라는 호칭으로 불리울 때

연안군 소정리당위원회에서

연안군 소정리에서 만났던 일군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38년간 이곳 리당위원장으로서 일해온 그에게 가장 큰 보람이 무엇인가고 물었을 때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인민들이 《우리 리당위원장》이라고 부르셨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인가를 모르겠다. 그 때부터 더 바빠졌을 것이지요.》

소박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안고있는 연안군 소정리당위원장의 말을 새겨볼수록 생각이 깊어진다. 인민들은 과연 어떤 일군을 《우리》라는 호칭으로 칭찬할 부를는지인가.

취재파견이 들은 가지가지의 사연들이 의미심장하게 들려온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라는 호칭은 그 어떤 관직이나 명예칭호가 아니라 관공리와 인민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군들에게 주는 가장 높은 칭호이고 평가이며 존경과 사랑, 믿음과 친근감의 대명사입니다.》

연안군 소정리 1리당위원장은 돌아온 리당위원장은 온갖 절을 읊었다. 며칠전에 배넌 비로 뜻하지 않게 최동무의 집 밖에 무너져 작업반원들이 집수리를 해주던 생각이 났던 것이다. 서둘러 최동무의 집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이리 배넌 축조를 관재지 못하였었다.

사연이 더욱 이리했다. 작업도중 자재가 떨어지자 최동무는 관리위원회에 찾았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관리위원회일군은 지금 벌려놓은 급한 공사를 마무리 하고 보자며 며칠만 참으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자 최동무는 그날 저녁 흥화모임에서 리당위원장

연안군 소정리에서 만났던 일군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38년간 이곳 리당위원장으로서 일해온 그에게 가장 큰 보람이 무엇인가고 물었을 때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인민들이 《우리 리당위원장》이라고 부르셨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인가를 모르겠다. 그 때부터 더 바빠졌을 것이지요.》

소박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안고있는 연안군 소정리당위원장의 말을 새겨볼수록 생각이 깊어진다. 인민들은 과연 어떤 일군을 《우리》라는 호칭으로 칭찬할 부를는지인가.

취재파견이 들은 가지가지의 사연들이 의미심장하게 들려온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라는 호칭은 그 어떤 관직이나 명예칭호가 아니라 관공리와 인민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군들에게 주는 가장 높은 칭호이고 평가이며 존경과 사랑, 믿음과 친근감의 대명사입니다.》

연안군 소정리 1리당위원장은 돌아온 리당위원장은 온갖 절을 읊었다. 며칠전에 배넌 비로 뜻하지 않게 최동무의 집 밖에 무너져 작업반원들이 집수리를 해주던 생각이 났던 것이다. 서둘러 최동무의 집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이리 배넌 축조를 관재지 못하였었다.

사연이 더욱 이리했다. 작업도중 자재가 떨어지자 최동무는 관리위원회에 찾았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관리위원회일군은 지금 벌려놓은 급한 공사를 마무리 하고 보자며 며칠만 참으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자 최동무는 그날 저녁 흥화모임에서 리당위원장

연안군 소정리에서 만났던 일군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38년간 이곳 리당위원장으로서 일해온 그에게 가장 큰 보람이 무엇인가고 물었을 때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인민들이 《우리 리당위원장》이라고 부르셨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인가를 모르겠다. 그 때부터 더 바빠졌을 것이지요.》

소박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안고있는 연안군 소정리당위원장의 말을 새겨볼수록 생각이 깊어진다. 인민들은 과연 어떤 일군을 《우리》라는 호칭으로 칭찬할 부를는지인가.

취재파견이 들은 가지가지의 사연들이 의미심장하게 들려온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라는 호칭은 그 어떤 관직이나 명예칭호가 아니라 관공리와 인민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군들에게 주는 가장 높은 칭호이고 평가이며 존경과 사랑, 믿음과 친근감의 대명사입니다.》

연안군 소정리 1리당위원장은 돌아온 리당위원장은 온갖 절을 읊었다. 며칠전에 배넌 비로 뜻하지 않게 최동무의 집 밖에 무너져 작업반원들이 집수리를 해주던 생각이 났던 것이다. 서둘러 최동무의 집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이리 배넌 축조를 관재지 못하였었다.

사연이 더욱 이리했다. 작업도중 자재가 떨어지자 최동무는 관리위원회에 찾았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관리위원회일군은 지금 벌려놓은 급한 공사를 마무리 하고 보자며 며칠만 참으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자 최동무는 그날 저녁 흥화모임에서 리당위원장

연안군 소정리에서 만났던 일군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38년간 이곳 리당위원장으로서 일해온 그에게 가장 큰 보람이 무엇인가고 물었을 때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인민들이 《우리 리당위원장》이라고 부르셨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인가를 모르겠다. 그 때부터 더 바빠졌을 것이지요.》

소박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안고있는 연안군 소정리당위원장의 말을 새겨볼수록 생각이 깊어진다. 인민들은 과연 어떤 일군을 《우리》라는 호칭으로 칭찬할 부를는지인가.

취재파견이 들은 가지가지의 사연들이 의미심장하게 들려온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라는 호칭은 그 어떤 관직이나 명예칭호가 아니라 관공리와 인민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군들에게 주는 가장 높은 칭호이고 평가이며 존경과 사랑, 믿음과 친근감의 대명사입니다.》

연안군 소정리 1리당위원장은 돌아온 리당위원장은 온갖 절을 읊었다. 며칠전에 배넌 비로 뜻하지 않게 최동무의 집 밖에 무너져 작업반원들이 집수리를 해주던 생각이 났던 것이다. 서둘러 최동무의 집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이리 배넌 축조를 관재지 못하였었다.

사연이 더욱 이리했다. 작업도중 자재가 떨어지자 최동무는 관리위원회에 찾았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관리위원회일군은 지금 벌려놓은 급한 공사를 마무리 하고 보자며 며칠만 참으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자 최동무는 그날 저녁 흥화모임에서 리당위원장



현장에서 정치사업을 하면서 광부들을 위문함으로써 불려일군이다. -12월5일청년방선에서- 본사기자 리봉규 찍음

중국인민지원군렬사모개건보수공사

착공식 진행

【평양 4월 6일합 조선중앙통신】 평명에 즈음하여 평양시 강동구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모개건보수공사 착공식이 6일에 진행되었다.

렬사모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제국주의반향세력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전사한 중국인민지원군렬사들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착공식에는 도시경영상 부상 최성철동지, 관공부분 일군들, 강동군인민군로동자들과 비전군 주조 중회인민문화구 특명전전대사, 대사관성원들, 여러 대표단을 비롯한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중국군인들이 참가하였다.

렬사모개 도시경영상, 평양시인민위원회와 중회인민문화구대사관, 여러 중국대표단들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참가자들은 중국인민지원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부상하였다.

이어 발언들이 있었다.

비전군특명전전대사는 지난 조선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의 근대와 인민과 어깨를 하고한 투쟁을 벌였다고 하면서 고귀한 생명과 정혼을 바쳐 조국인민의 전률적전선을 보여준 려사들의 공헌을 잊지 않았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려사모개건보수공사가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성철부상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참이린 조조가위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인민과 함께 공동의 투쟁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운 중국인민지원군렬사들의 영웅적위훈에 대하여 강조했다.

그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모개건보수공사를 제 기일에 끝내 려사들의 위인이 조종 무 너라 근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게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착공의 첫삽을 떴다.

평양명 초급일군들이 어느 명절날 윤광3소대의 한 로동자의 가정을 찾았던 때의 일이었다.

그의 가족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며 부부당위원장 강철홍동무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 가족들과 헤어지는 그의 키에겐 문득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다.

《경에서 평양같은 부부, 축가이 정말 말없이였어.》

《한겨울에 그 뜻이상 없지. 제는감추며 후회하니까.》

광산적으로 후방로동자가 그치고 공업사업도 잘된다고 알려주는 평명정이었다. 바로 전날 그간하던 후방광업사업도 그만하면 편했었다. 그런데 가족들의 이야기가 들려오자 그는 마음이 급한 남세방이 적었다. 이미 건설한 온실면적이 세화되어서 종업원들에게 공급할 부부, 축가가 넘치지 못했다.

가득되는것이 있었다.

축산과 태양열난방시설건설과 관련한 후방광업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고 광산초급당위원회에서 경을 적극 내세워주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은파광산 광명광 부부당위원회 사업에서

보여주기사업도 진행하였지만 만족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정책관들을 위한 사업을 오분열적으로 하는 편향을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끝장을 뚝 찌자위 엄강하게 내밀어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이 인민들의 생활에서 나타나게 하여야 합니다.》

남보다 앞섰다고 하여 마음의 핏대를 풀어놓을뿐 했던 경장과 부부당위원장은 가정방문을 통하여 교훈을 찾았다.

겨운 성과에 만족할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큰 덕을 볼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 당정책의 생활력을 과시할수 있고 대중의 생산의욕을 최대한 높여줄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광산초급당위원회의 지도도에 새 작전을 펼쳤다.

태양열난방시설건설을 보다

보여주기사업도 진행하였지만 만족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정책관들을 위한 사업을 오분열적으로 하는 편향을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끝장을 뚝 찌자위 엄강하게 내밀어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이 인민들의 생활에서 나타나게 하여야 합니다.》

남보다 앞섰다고 하여 마음의 핏대를 풀어놓을뿐 했던 경장과 부부당위원장은 가정방문을 통하여 교훈을 찾았다.

겨운 성과에 만족할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큰 덕을 볼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 당정책의 생활력을 과시할수 있고 대중의 생산의욕을 최대한 높여줄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광산초급당위원회의 지도도에 새 작전을 펼쳤다.

태양열난방시설건설을 보다

보여주기사업도 진행하였지만 만족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정책관들을 위한 사업을 오분열적으로 하는 편향을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끝장을 뚝 찌자위 엄강하게 내밀어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이 인민들의 생활에서 나타나게 하여야 합니다.》

남보다 앞섰다고 하여 마음의 핏대를 풀어놓을뿐 했던 경장과 부부당위원장은 가정방문을 통하여 교훈을 찾았다.

겨운 성과에 만족할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큰 덕을 볼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 당정책의 생활력을 과시할수 있고 대중의 생산의욕을 최대한 높여줄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광산초급당위원회의 지도도에 새 작전을 펼쳤다.

태양열난방시설건설을 보다

보여주기사업도 진행하였지만 만족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정책관들을 위한 사업을 오분열적으로 하는 편향을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끝장을 뚝 찌자위 엄강하게 내밀어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이 인민들의 생활에서 나타나게 하여야 합니다.》

남보다 앞섰다고 하여 마음의 핏대를 풀어놓을뿐 했던 경장과 부부당위원장은 가정방문을 통하여 교훈을 찾았다.

겨운 성과에 만족할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큰 덕을 볼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 당정책의 생활력을 과시할수 있고 대중의 생산의욕을 최대한 높여줄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광산초급당위원회의 지도도에 새 작전을 펼쳤다.

태양열난방시설건설을 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5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5돐을 맞아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연구 토론회가 6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관계부문, 직맹원들, 로동자들과 직맹원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비밀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으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정지에 올려 세우고 후손만대의 번영과 찬란한 미래를 위한 억만년대를 마련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해설전문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인 선군혁명사상에 의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총대로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자주성, 사회주의전위성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조국의 부강변방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갔을 인공 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병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고 배우는 혁명, 주체혁명의 명맥을 꽃같이 이어주시는 불멸의 위인이시라는 제목으로 직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강철만동지가 토론하였다.

토론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높이 보시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을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리론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리론을 제시하시어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고 주체혁명의 승리의 전진을 위한 지름길을 활기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연구 토론회가 6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관계부문, 직맹원들, 로동자들과 직맹원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비밀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으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정지에 올려 세우고 후손만대의 번영과 찬란한 미래를 위한 억만년대를 마련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해설전문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인 선군혁명사상에 의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총대로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자주성, 사회주의전위성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조국의 부강변방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갔을 인공 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병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고 배우는 혁명, 주체혁명의 명맥을 꽃같이 이어주시는 불멸의 위인이시라는 제목으로 직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강철만동지가 토론하였다.

토론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높이 보시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을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리론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리론을 제시하시어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고 주체혁명의 승리의 전진을 위한 지름길을 활기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일심단결의 사상을 내놓으시어 령도자를 유일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빛나게 실현되고 우리 공화국은 분열의 정치사상강국으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였다.

조국과 혁명의 진도에 대한 승고한 책임감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령도의 계승문제를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해결하시어 백두의 혈통, 주체혁명의 명맥을 꽃같이 이어주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토론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령에 높이 보시도록 하시어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밝고 찬란한 미래를 열어 주신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중에서 최대의 업적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근로단체출판사 주원 박선화동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인민의 운명을 믿음직하게 지켜주시는 위대한 선군명장이시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의 중요한 시련의 시기 독창적인 선군정치, 선군혁명병으로 인민군대를 창설한 위업을 높이 평가하시어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을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리론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리론을 제시하시어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고 주체혁명의 승리의 전진을 위한 지름길을 활기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5돐을 맞아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연구 토론회가 6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관계부문, 직맹원들, 로동자들과 직맹원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비밀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으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정지에 올려 세우고 후손만대의 번영과 찬란한 미래를 위한 억만년대를 마련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해설전문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인 선군혁명사상에 의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총대로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자주성, 사회주의전위성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조국의 부강변방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갔을 인공 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병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고 배우는 혁명, 주체혁명의 명맥을 꽃같이 이어주시는 불멸의 위인이시라는 제목으로 직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강철만동지가 토론하였다.

토론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높이 보시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을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리론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리론을 제시하시어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고 주체혁명의 승리의 전진을 위한 지름길을 활기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5돐을 맞아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연구 토론회가 6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관계부문, 직맹원들, 로동자들과 직맹원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비밀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으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정지에 올려 세우고 후손만대의 번영과 찬란한 미래를 위한 억만년대를 마련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해설전문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인 선군혁명사상에 의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총대로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자주성, 사회주의전위성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조국의 부강변방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갔을 인공 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병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고 배우는 혁명, 주체혁명의 명맥을 꽃같이 이어주시는 불멸의 위인이시라는 제목으로 직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강철만동지가 토론하였다.

토론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높이 보시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을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리론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리론을 제시하시어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고 주체혁명의 승리의 전진을 위한 지름길을 활기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5돐을 맞아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연구 토론회가 6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관계부문, 직맹원들, 로동자들과 직맹원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비밀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으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정지에 올려 세우고 후손만대의 번영과 찬란한 미래를 위한 억만년대를 마련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해설전문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인 선군혁명사상에 의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총대로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자주성, 사회주의전위성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조국의 부강변방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갔을 인공 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병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고 배우는 혁명, 주체혁명의 명맥을 꽃같이 이어주시는 불멸의 위인이시라는 제목으로 직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강철만동지가 토론하였다.

토론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높이 보시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을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리론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리론을 제시하시어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고 주체혁명의 승리의 전진을 위한 지름길을 활기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5돐을 맞아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연구 토론회가 6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관계부문, 직맹원들, 로동자들과 직맹원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비밀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으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정지에 올려 세우고 후손만대의 번영과 찬란한 미래를 위한 억만년대를 마련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해설전문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인 선군혁명사상에 의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총대로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자주성, 사회주의전위성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조국의 부강변방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갔을 인공 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병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고 배우는 혁명, 주체혁명의 명맥을 꽃같이 이어주시는 불멸의 위인이시라는 제목으로 직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강철만동지가 토론하였다.

토론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높이 보시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을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리론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리론을 제시하시어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고 주체혁명의 승리의 전진을 위한 지름길을 활기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대양절경축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 개막

대양절경축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가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이번 선수권대회에서는 각지 대련도선수단을 비롯한 20여개 단에서 선발된 500여명의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여 태권도, 바둑 등 여러 종류의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개막식이 6일 대련도전당에서 있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희봉의 내각사수장 김영호 동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서기장 김춘식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시내로동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대련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동지가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당의 령도밑에 공화

대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 개막

대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주체산업미술전의 일대 전성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소 지도하시던 금수산태양궁전 계도전차량대도안과 삼지연 감자가공생산공장관련 도안들, 우리시의 지하철도차량대도안들, 봉악산비누공장 계통상표도안 등 800여점의 도안들과 모형, 실현재품들이 출품되었다.

나머지 산업미술을 주제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승고한 뜻을 받들고 전국의 산업미술작가, 교원, 연구사, 학생들, 애호가들이 불타는 열정과 지혜를 다 바쳐 창작한 700여점의 각종 도안들과 제품들, 모형, 풍영상시료들도 부분별로 전시되었다.

실용적인 측면과 미적측면을 유기적으로 잘 결합시키고 간결성과 집중성, 상징성이 보장된 도안들과 갖가지 전시품들은 당의 혁명한 령도밑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참담게 이바지하며 미약적으로 발전하는 산업미술의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강조하시었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들에서 심혈을 기울여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고 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령도안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산업미술의 획기적 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이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대통령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 단장인 외무상 리용호 동지가 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진행된 헬릭스가담동무수상회담에 참가한 외무상 리용호 동지가 5일 일할 알리예브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대통령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일할 알리예브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말

우리의 맛, 우리의 향기가 제일

제 23차 대양절료리축전장을 돌아보고

이곳 주양장 막소호동무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민족음식의 하나인 막소호동무를 연구한것은 정전 구역총합시당 봉낙산수공업리 시물이였다. 막소호동무를 비롯 한 이곳 봉산마을의 고집이런 노력으로 하여 단초가공방법은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1등으로 평가될수 있었다. 이번 축전에서도 사람들은 단초의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할수 있게 단초를 로리가공기술을 더욱 발전시킨 이들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함께 전국발명 및 상의고 안건상모집에 우수한 제안을 많이 내놓은 봉산인민군, 로리사람들이 받은 평가장서들과 명예증서도 수여되었다. 전국과학기술축전과 전국발명 및 세 기술발명전에서 받은 금메달과 상장들을 보니 지혜로운 로리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다. 로리사람들이 내놓은 발명품은 수없이 많았다. 로리사람들이 내놓은 발명품은 수없이 많았다. 로리사람들이 내놓은 발명품은 수없이 많았다. 로리사람들이 내놓은 발명품은 수없이 많았다.

우리 나라 외무상이 여러 나라 정부대표단 단장들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 단장인 외무상 리용호 동지가 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진행된 헬릭스가담동무수상회담에 참가한 외무상 리용호 동지가 5일 일할 알리예브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대통령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일할 알리예브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말

외무상 리용호 동지는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부대표단 단장들을 만났다. 리용호 동지는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부대표단 단장들을 만났다. 리용호 동지는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부대표단 단장들을 만났다. 리용호 동지는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부대표단 단장들을 만났다.

화상한 봄기절에 수도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제 23차 대양절료리축전

화상한 봄기절에 수도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제 23차 대양절료리축전은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보다 아름답고 그윽한 향기를 북돋아주었다. 이번 축전은 장안로전시회, 지정로전시회, 과학기술상과 전시회, 음식봉사정연, 대학생들의 로리가공기술 등 다채로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로리가 발전수준을 보면 사람들의 식생활수준뿐 아니라 문화수준, 나라와 민족의 문명정도도 알수 있습니다.》

축전에서 특별히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전구각에서 온 로리사람들의 음식가공기술을 한눈에 엿볼수 있는 장안로전시회도 열렸다. 이곳에 입맛이 돋고 로리사람들이 하나의 원자재를 가지고도 연구를 많이 하고 착상을 새롭게 하였다것이 입맛을 사로잡았다.

외무상 리용호 동지는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부대표단 단장들을 만났다. 리용호 동지는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부대표단 단장들을 만났다. 리용호 동지는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부대표단 단장들을 만났다. 리용호 동지는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부대표단 단장들을 만났다.

